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운영

임실군, 영농철 농기계 파종기 등 11종 63대 추가 확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개시

임실군이 분철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기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오는 6월까지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총 4개소로 이곳에서는 22종 838대의 농기계를 평일과 동일하게 임대받을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등 11종 63대의 임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또한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하여 농업인의 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잔가지 파쇄기의 무료 임대 및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도 운영 중이다.

임실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농업기계화 촉진 유공 지자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발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보급 확대 등 농업기계 분야 시책 추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해 현장 체험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하는 한편 임대료 50% 감면 재연장과 논농 수확 농작업 대행을 추가 운영하는 등 농작업에 큰 도움을 줬다.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과 함께 일부 농기계에 숙련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사용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지원하기도 했다.

고령 영세농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해 관내 70세 이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로터리와 두둑, 비닐멀칭 작업 등을 직접 대행해 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남원시, 확인 조사 대상자 1721가구... 6월 28일까지

남원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국가유공자 등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회신된 1,721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인해 수급자가 기존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기존 보장 내역의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 선정 기준이 낮은 타 보장제도 안내 및 직권으로 신청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주민복지과 허인선 과장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복지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서울 강남 대성학원 입시 전문가 김원중 입시전략설명을 초청하여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가졌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입시 전문가 초청 설명회 큰 호응

순창군 옥천인재숙(원장 강인형)이 관내 학생들의 성공적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전략 중 하나로 서울 소재 우수 입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특히, 옥천인재숙은 지난달 4일 새로운 원장 취임 이후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등 인재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과 나아갈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재숙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지성관 2층에서 대학 입시 유명 학원인 서울 강남 대성학원 입시 전문가 김원중 입시전략설명을 초청하여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가졌다.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현재의 대학 입시 교육정책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설명하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 제도

에 맞춰 학년별 입시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첫째 날은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시제도, 정확히 알고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 전략을 공유했으며, 고1 및 고2 학생들을 위한 시간에는 '대입 성공의 방향을 잡아'라는 주제로 대입을 향한 체계적인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마지막 날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성공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 하에 대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등 학년별로 세분화된 입시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입시 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 중 한 학생은 "이번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통해 입시 준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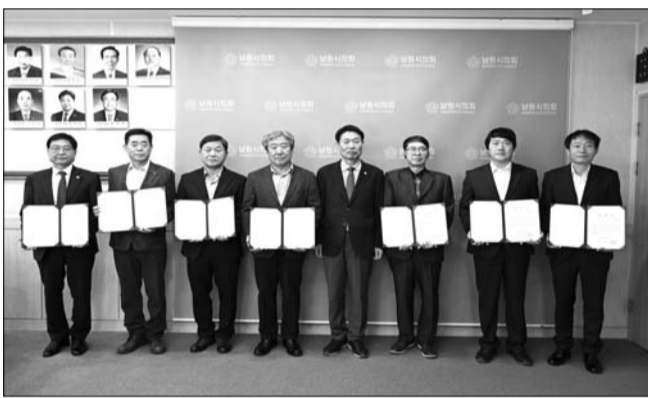
남원시의회,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기열 의원 등 7명 위촉

남원시의회(의장 전정기)는 4월 2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7명의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촉 위원은 이기열 의원 등 7명으로 검사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서를 검사해 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기열 대표위원은 "예산이 낭비된 사례 없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결산검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가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다가오는 6월 제266회 남원시



남원시의회는 4월 2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7명의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제 성공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호 협력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남원추어요리협회 협약 체결

남원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남원추어요리협회는 4월 2일, 제94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남원시는 친절·위생·가격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생단체와 간

담회를 갖고 음식점들의 가격합인 및 서비스메뉴 제공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추어요리협회 회원업소 대부분은 춘향제 기간인 5월 10일~5월 16일까지 추어탕 가격을 1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는 4월 1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위생교육 일정에 맞춰 부당요금 근절 결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향제 관계자는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들과 협력하고 축제 기간에만 운영되는 한시적 영업신고 대상자들도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사전에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임신 전 사전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에 장애가 되는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3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남원의료원(산부인과)과 참조은산부인과이며, 남원 외 의료기관은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부부당 최대 2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지원에 대해서는모자보건팀(063-620-79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임신 준비기부터 알차고 체계도 높은 사업을 시작하여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사업 실시

순창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순창군에 경작지를 둔 농가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지원내용은 농가당 최대 20포·통(포·통당 최대 35천원)으로 농가별 사업비 중 보조 60%, 자부담 40%이다.

기피제사업 희망농가는 4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림청 등 환경담당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 잔액과 추가 확보 여부에 따른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수도과 환경정책팀(063-650-1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희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